<書 評>

George A.C. Scherer and Michael Wertheimer. *Psycholinguistic Experiment in Foreign-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xiii+256 pp.

田 相 範
(서 울 大 學 校)

Oral approach 라든가 pattern practice 등 새로운 英語敎授法에 관한 術語들이 Fries 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膾炙되어 온 지도 벌써 10餘年이 지났다.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常識이며 敎授法 關係의 모임이나 授業評價會 등에서 이들은 이미 旣定事實로서 모든 것에 대한 評價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表面的인 流行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敎室에서는 아직도 grammar-translation 一色이며 表面的인 發言이야 어찌되었든 大部分의 現場敎師들이 audiolingual method[1] 에 대해서 매우 懷疑的이라는 事實은 어떻게 說明되어야 할 것인가? 勿論 ASTP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같은 audiolingual 의 奇蹟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奇蹟 속에는 敎授法의 優秀性이라고 하는 하나의 variable 에만 焦點을 맞추기에는 너무나 有利한 여러 가지 與件들이 加勢하고 있으며[2] 이러한 與件들은 大部分의 敎授現場에서는 不可能한 것들이다. 이 때 問題가 되는 것은 果然 ASTP 의 成功이 敎授法의 優秀性 때문에 可能했던가 아니면 優秀한 敎授法과 그밖의 여러가지 有利한 與件과의 happy match 에 依한 것이냐 或은 ASTP 에게 주어졌던 與件 아래서라면 어떠한 形態의 敎授法도 成功할 수 있었느냐 하는 點들이다.

Audiolingual method 에 대해서 懷疑的인 側에서는 이 方法 그 自體는 좋으나, 우리 나라

---

*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1] 本來 使用되던 oral-aural method 라는 術語 대신에 N. Brooks 가 만들어 낸 術語.

[2] 다음과 같은 點들을 들 수 있다. 첫째, 學生을 嚴選했다. 學生들은 嚴密한 言語適性檢査를 받았다. 둘째, 學生들에겐 높은 motivation 이 있었다. 受講中 月給을 받고 있은 것은 勿論이거니와 修了後에는 進級되었다. 세째, 같은 宿所에서 起居했고 네째, 學生數가 적었다. 많아야 10名이었다. 다섯째, 授業時間이 集中的으로 많았다. 每日 理論 한時間에 練習 두 時間으로 週 17 時間이며 學生들은 每月 세 時間分의 宿題가 주어진다. 授業만도 全期間 9 個月동안에 612 時間으로 普通大學의 週 3 時間의 外國語時間에 比하면 무려 6,7 年分에 該當한다. 여섯째, Drill-master 는 native speaker 이거나 最少限 bilingual 이다. 일곱째, 거의 無制限에 가까운 豫算의 뒷받침이 있어 豐富한 敎具의 使用이 可能했고 여덟째, 새로운 敎授法을 導入했으며 아홉째, area study 를 活潑히 했다.

처럼 學生數가 많거나 敎師가 아직 이 方法을 다루기에 未熟하다거나 或은 오늘날과 같이 入試爲主의 社會的 與件下에서는 어렵다고 말한다. 조금더 妥協的인 側에서는 audiolingual은 低級學年에서는 無妨하나 高學年에서는 無理라고 말한다.

方法 그 自體는 優秀하다는 말도 問題가 되려니와 (왜냐하면 決定的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方法이란 決定的으로 좋지 않은 方法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audiolingual method가 低學年에게만 알맞는다면 그 低學年이 몇 學年까지를 意味하는 것인지도 알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結果에 대해서 어떤 確信이 생기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活潑한 새 敎授法의 普及이 있어야 할 것이다.

重要한 것은 모임에서의 討論이나 論文을 通한 誌上討論이 아니라, 實際로 現場에 가서 比較하려는 두 方法을 偏見없이 使用해 그 結果에 依據하여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일이다. 우리 周邊에서도 이를 위한 大小의 努力이 있어 왔으나 그 結果는 번번히 實驗者의 意圖와는 正反對의 或은 失望的인 수가 많았다. 여기에 대해 實驗者들은 目前의 結果보다는 言語 各機能에 대한 앞으로의 transfer의 可能性을 이야기하나 이는 catch-up study가 없는 現狀下에서는 自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은 結局 traditionalists의 主張과 平行線을 긋게 되어 새 敎授法에 대해서 贊이건 否건 間에 確固한 우리의 態度를 決定하는 데 別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實情은 우리 固有의 것은 아닌 모양으로 어쨌든 新舊敎授法을 虛心坦懷하게 使用하여 그 結果를 綜合的으로 比較 分析하며 transfer의 可能性마저도 測定해 보겠다는 意圖에서 美國의 Scherer와 Wertheimer 두 사람의 實驗이 있게 된 것이다.

*A Psycholinguistic Experiment in Foreign-language Teaching*은 Office of Education의 財政的 後援을 얻은 Colorado 大學에서 독일語 敎授 Scherer의 主管 아래 同大學 學生들에 대한 독일語 敎授에 使用한 audiolingual method와 grammar-translation method의 2年間에 걸친 實驗結果報告書이다. 實驗은 始終 Scherer에 依해 組織 運營되고 다만 Wertheimer는 그 結果에 대한 測定에 技術的인 援助를 提供하고 있는 同時에 뒤에서 이와 같은 여러가지 測定方法의 妥當性을 檢討하는 데 끝이고 있다. 그 外에 같은 大學의 D. Bolinger, P. Delattre 敎授들이 部分的으로 參加하고 있고 N. Brooks 등이 助言에 應하고 있다.

이 册은 全六章으로 되어 있으며 第一章(The Problem)에서는 이와같은 硏究의 必要性을 말하고 있고,

第二章(Design of the Experiment)에서는 instructor와 學生의 編成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새삼 實驗(特히 人間을 Subjects로 하는 心理實驗)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가장 큰 要諦는 實驗結果에서 如何히 敎授法이라는 variable 以外의 것들을 排除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理想的인 것을 말하라면 新舊兩方法에 대해서 꼭같은 信念을 가진 한 instructor가

年齡 性別 知能 態度意慾 過去 등이 꼭 같은 同數의 學生 두 group을 꼭 같은 量의 時間에 꼭 같은 誠意를 가지고 가르치고 學生들도 꼭 같은 量의 時間 동안 豫習 複習을 하게 하여 꼭 같은 方法으로 그 結果를 測定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法이 實際로 不可能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結局은 그 次善策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cohort pair (matched-pair)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面에서 꼭 같은 두 學生을 한짝으로 하여 各各 experiment group와 control group에 넣는 方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두 group의 平均뿐만 아니라, cohort 相互間의 差異도 알 수 있게 되어 學生들이 가지고 있는 言語 各機能에 미치는 variables의 影響을 더 精密히 알아 볼 수 있다. 이 册은 이와 같은 cohort의 長點을 말하면서도 몇 가지 理由로 해서[3] 學生들의 希望을 完全히 無視한 randomization의 方法으로 編成하고 대신 pre-test와 post-test에 의한 general group comparability의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第三章(Comparability of the Groups)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編成된 두 group에 여러 가지 test를[4] 實施하여 이것들을 group別로 比較하였거니와 이것들과 各種 言語機能과의 이들 相互間의 correlation에 대한 統計도 提示하여 이것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重要한 示唆를 주고 있다. 이를테면 LCT는 language-learning ability와는 別로 關係가 없다든지 女子가 男子보다 一般的으로 language aptitude가 높다는 등이다.

第四章 (Materials and Teaching Procedures)에서는 이 實驗에 使用된 敎授法을 解說하고 있는데, 우리가 普通 理解하고 있는 audiolingual method에 대한 常識的인 理論과 過程을 說明하고 있으며. grammar-translation method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이 없다.

第五章 (Post-tests)에서는 이 實驗에서 施行한 各種 test에 대해 說明하고 있는데 大別하여 proficiency test와 psycholinguistic test로 나눌수 있다. 前者에서 特히 注目을 끄는 것은 各 variable을 可能한 限 純粹하게 測定하려고 하는 努力이다. 이를테면 listening test를 위해서 흔히 使用하는 方法 가운데 口頭로 stimulus를 주고 答案紙에는 multiple-choice answers를 주어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方法 등이 있는데, 이것은 listening comprehension과 reading ability test의 두 要素가 混合된 것으로서 排擊해야 한다는 것이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등에 대해서 多樣하게 調査해 나간다.

---

[3] 첫째, 몇개의 variables를 基準으로 cohort를 묶느냐는 點이다. 가령 年齡이나 性別 知能등 考慮해야 할 variables가 두서너 가지까지라면 比較的 짝짓기가 簡單하겠지만 그밖의 各種 言語機能과 興度 意慾등 variable의 數가 늘어나면 그런 cohort를 찾는다는것은 위에서 말한 理想論과 함께 매우 어렵게 된다. 둘째 cohort pair 가운데 어느 하나가 drop out 해 버리면 그 나머지 한 學生은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4] AAA general; AAA English; AAT mathematical; LCT (The Brown-Carlsen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for Erglish); MLAT (Carroll-Sapon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Sex; Age; Years in School (以上 一學期). 二學期에는 上記外에 Outside experience; Parent attitude; Motivation; Combined motivation; Hours studied 등도 調査하고 있다.

Psycholinguistic tests 는 네 가지로 첫째, symbol 과 referent 의 direct association[5]에 대한 客觀的인 測定, 둘째, direct association 에 대한 主觀的인 測定, 세째, 態度와 意慾度의 測定, 네째, 其他로 되어 있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 册에서 心理學은 主가 아니며 이 硏究는 그 計劃에서 施行에 이르기까지 心理學과는 獨立하여 이루어졌고, 다만 心理學은 그것의 事後處理에만 動員된 느낌이나, 其實 이 psycholinguistic tests 야말로 이 册에서는 제일 재미 있고 特色 있는 部分을 이루고 있다.

Direct association 調査는 매우 重要한 것으로, 어느 程度 to think in German 의 習性이 붙었느냐 하는것에 대한 測定이다. 우리가 audiolingual method 를 使用할 때는 從來의 方法에서보다 몇 가지를 犧牲하게 되는데 例를 들면 語彙數를 制限해야 한다든지, 읽기와 쓰기를 뒤로 미룬다든지 文法說明을 하지 않는다는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犧牲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이것들보다 더 重要한 어떤 것을 위한 것인데, 그 「어떤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硏究에서는 大槪의 境遇測定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막연히 potentiality 라고만 理解되었고 audiolingual method 의 結果가 滿足스럽지 못할 때에 自慰의 口實을 提供해 왔다. 그러나 Colorado study 에서는 이것을 數字化하여 科學的으로 分析해 놓고 있다.

Direct association 調査를 위한 客觀的인 測定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方法이 使用되고 있다. 첫째는 Reaction-time technique 인데, 이것은 referent 와 symbol 과의 association 이 徹底하면 할수록 subject 는 독일語로 된 指示나 叙述에 독일語를 英語로 일단 번역하는 學生보다 더 빠른 反應을 보일 것이라는 前提에서 出發하고 있다. 實驗은 독일語와 英語 두 가지로 stimulus 를 주어 그것에 대한 反應速度의 差를 比較하는 것이다.

둘째는 Translation Error 方法인데 semantic referent 와 verbal symbol 과를 mental translation 에 의해서 連結하는 사람은 兩者를 直接 連結하는 사람보다 독일語와 英語를 더 混同하기 쉬울 것이라는 假定下에 이 實驗은 이루어지고 있다. 實驗者가 subjects 에게 英獨混合의 單語 20 個를 주고 다시 再生케 하는데 이때 mental translator 에게는 모든 單語가 其實 英語이기 때문에 잘못이 그만큼 많아진다.

세째는 Saturation with Meaning 의 方法이다. 이 方法은 單語들이 가끔 그 單語가 本來 가지고 있던 뜻들이 없어지고 생소해지고 이상해 보이는 瞬間들이 있는데, 이와같은 lapse of meaning 은 우리가 쓰는 單語가 우리에게 익숙하면 할수록 더디 일어난다는 實驗結果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네째는 Sensitivity to Semantic Nuances 에 대한 反應이다. 이는 單語의 connotative difference 의 調査로서 Osgood 의 semantic differential scale 을 bilingual 에게 rating 시키고, 이어 學生들에게 rating 시켜 그 差를 알아 보는 것이다.

---

[5] Michael West 는 direct bond 라고 한다.

以上 네 가지 客觀的測定과 함께 主觀的인 測定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設問을 學生들에게 rating 시킴으로써, direct association의 程度를 알아 보는 것이다. 設問에는 「독일語가 꿈에 나타난 적이 있느냐?」「독일語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주 英語單語가 떠 올라오느냐?」 등이 있다.

意慾度調査에는 Orientation Index를 利用하고 있다. 독일語를 배우는 instrumental motive (入社試驗에 必要하다 등)와 integrative motive (독일語가 재미 있어 배운다는 등)로 나누어 이 亦是 여러 개의 設問을 學生들이 rating하게 한다.

態度調査는 Lambert pattern에 의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Srole 등에 의한 anomic 調査와 Lambert의 social inhibition scale 등을 利用하고 있다. 前者는 우리가 다른 文化樣式과 接할때 갖게 되는 文化의 外國化의 程度를 調査하는 것이고 後者가 audiolingual method가 所謂 stage-fright라는 것을 除去하는 데 얼마나 寄與했느냐에 대한 調査다. Audiolingual method에서는 自然히 對人接觸이 많으니까, 學生들의 stage-fright도 그만큼 더 除去되었으리라고 假定할 수 있다.

이밖에도 verbal fluency test라든가 sentence ranking test라든지 여러 가지 調査를 곁들이고 있다.

第六章 (Results)에서는 지금까지의 調査結果를 圖表化하여 이를 評價하고 있다. 結果는 大槪 처음에 짐작했던 대로 初期에는 experiment group의 學生들이 control group의 學生들보다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 越等 優勢한 反面, 읽기, 쓰기, 飜譯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는데, 時間이 감에 따라 相互 두 group의 差는 줄어 들게 된다. 그러나 그 差는 줄어들지언정 뒤바뀌지는 않아 audilingual group이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도 traditional group을 앞서리라는 처음의 豫測은 적어도 二年間의 實驗에서는 맞지 않은 셈이다.

이와 같이 proficiency test에 있어서는 두 group이 비등한 反面, psycholinguistic test에 있어서는 audiolingual group이 各方面에서 優勢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에 대하여 著者들은 結論으로서 一年 동안에 말하기 能力을 기르려는 學生에겐 audiolingual method를, 쓰기가 目的인 學生에겐 traditional method를 使用하라고 말하고 있다.

以上에서 이 册의 內容을 槪觀하였거니와 이 册이 우리에게 갖는 意義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各種形態로 實施될 實驗을 위한 하나의 sample이 될 수 있다. 그 計劃에서부터 施行 評價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踏襲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둘째 이 硏究는 요즈음 하나의 流行이 되고 있는 敎授法에 대한 心理學 援用의 한 sample이 될 수 있다. 세째 그 結論이야 놀라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의 主張을 위한 實證的인 努力의 한 sample로서 그 結果에 대한 著者들의 偏見없는 淡淡한 態度도 본받을 만하다.

勿論 몇가지 不滿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group에 대한 더 徹底한 control이 있어야 마땅했으리라는 點이라든가 或은 對象學生의 數, 硏究의 期間에 대한 慾心을 말해 볼 수

도 있을 것이고 variables 變動에 대한 보다 많은 考慮도 要求할 수 있을 것이나, 여하튼 거의 無望에 가까울 程度로 variables 가 서로 읽히는 實驗을 이만큼 綿密하고 科學的으로 遂行한 이들의 努力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